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역 자유통로의 장소만들기

_ 야마구치(山口)시 신야마구치역(新山口駅)

Placemaking of the Unrestricted Passage of a station connecting districts _ Shinyamaguchi Station, Yamaguchi City.

글. 송준환 Song, Junhwan
야마구치 국립대학 공학부 조교수

1950년대 이후, 일본은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철 민영화와 함께 철도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철도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골격이 형성되고, 역 주변에는 상점가 등 각종 생활시설이 밀집됐다. 하지만, 지방도시에서는 모터리제이션(Motorization)에 따른 철도이용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에 노선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 감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철도역사와 지상선로에 의해 도시가 단절·분단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9년의 ‘도시에 있어서 도로와 철도와의 연속입체교차화에 관한 협정(都市における道路と鉄道の連続立体交差化に関する協定)’이 체결되어, 연속입체교차화사업에 의한 철도역사와 선로의 고가화 및 지하화 사업이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연속입체교차화 사업은 주로 대도시 도심부에서 주로 실시되고, 지방도시에서는 선로분단의 문제를 주로 역사의 교상화¹⁾와 자유통로의 정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²⁾. 일본에서 말하는 자유통로(自由通路)란,

1) 역사의 고가화(高架化)는 선로와 플랫폼 등 주요 역사기능이 고가(高架)에 위치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의 교상화(橋上化) 선로를 포함한 역사의 주요기능이 지상에 위치하며, 선로의 각 플랫폼 간에 상부다리를 만들어 이동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일본의 건축계잡지인 「신건축(新建築)」, 「건축설계자료집64 지역의역(建築設計資料集64 地域の駅)」, 「철도건축 뉴스(鉄道建築ニュース)」의 3개의 잡지에 게재된 과거 30년간(1986~2016)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일본전국의 철도역사의 자유통로는 288사례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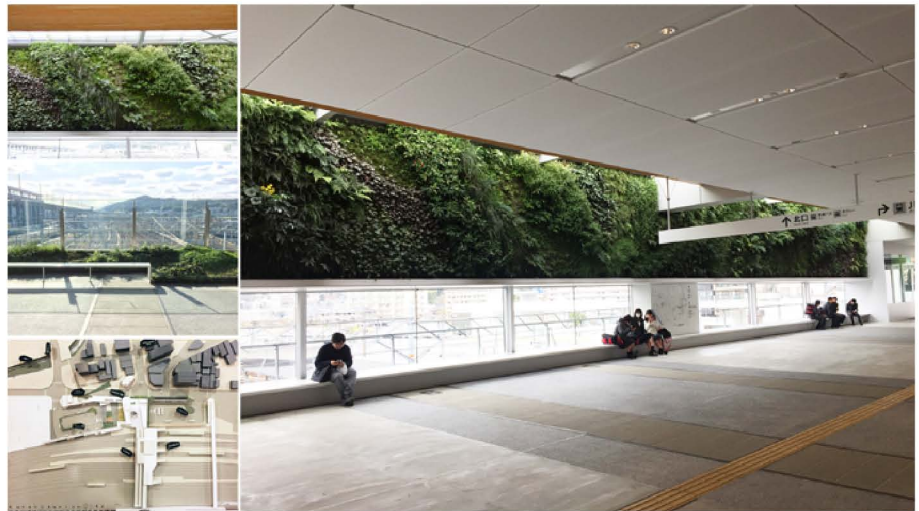


그림 1) 자유통로 벽면녹화 전경및 모형

© 송준환

철도역사 내를 횡단하는 통로 중에 철도이용자만 아니라,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통로로서 선로에 따라 분단된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통로를 가리킨다. 자유통로의 정비는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단된 시가지가 역을 중심으로 일체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야마구치현(山口県)의 현청소재지인 야마구치시(山口市)에 위치하는 신야마구치역(新山口駅) 또한 일명 ‘터미널 파크 정비사업(ターミナルパーク整備事業)’을 통해 북쪽출구역 앞 광장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선로에 의한 남북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통로를 정비했고, 2016년10월에 완성됐다.

■ 벽면녹화를 통한 단순 통로에서 장소만들기로

신야마구치역은 역의 남북을 연결하여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보행자 전용통로가 폭원 10m의 개방적인 반외부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자유통로에서는 아래로 선로상의 디젤, 전차 그리고 신칸센(新幹線) 등을 바라 볼 수 있다. 이전까지 내부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사람들은 야마구치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인식할 수 없었으나, 개방형 공간으로 만들어진 자유통로 내에서는 외부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단순한 통로로서의 공간만이 아니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통로’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그림 2) 패트릭블랑씨와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워크숍모습(2016. 9. 29. 금)

© 송준한

이와 함께 특징적인 것이 약 400㎡에 이르는 벽면녹화이다. 이 벽면녹화는 식물학자인 패트릭 블랑(Patrick Blanc)씨에 의해서 진행됐다.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수직정원 전문가로 유명하며, 특히 파리 아부키르 거리(Aboukir street)와 일본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金沢21世紀美術館) 등에서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야마구치시가 풍부한 식물의 다양성을 지닌 장소라는 점을 바탕으로 신칸센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환경으로 수직정원을 통해서 야마구치의 식생의 풍부함을 재현하고자 했다. 4년간에 걸쳐 일본 내의 원예팀(parkERs)과 함께 협동작업을 실시하여, 야마구치현 내의 수림에서 채집한 140여 종의 야생식물을 식재했다. 실제로 채집한 식재를 식물 재배장에서 2년간 배양한 후 수직정원에 심게 되는데, 패트릭 블랑 씨의 이미지 스케치를 바탕으로 식물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식재를 실시했다(그림 참조). 또한 이 프로젝트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구리금속과 자연석 포장과 막 천장등의 마감을 통해 친근감 있고 부드러운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일반적인 자유통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식물의 향까지 체감할 수 있는 비일상적 공간을 분단된 지역의 연결고리에 투영함으로써 새로운 활성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역광장의 완성을 통한 지역 거점으로

2016년에 자유통로가 완성됐으나, 북쪽 출구의 역앞 광장은 아직 공사 중에 있다. 주 컨셉은 ‘0번선(0番線)’으로서, 역을 기점으로 마을과 지역으로 이어져 나가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완성된 파출소와 향후 계획 중인 버스센터, FM스튜디오, 관광안내시설 등 제반 기능을 자유통로에서 역앞 광장에 도달하는 각 장소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이 광장을 중심으로 둘러싸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역에 면하여 모든 시설을 완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층의 시설들을 광장전체에 배치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역을 이용하는 사람과 관광 및 비즈니스로 역을 이용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용자들이 자유통로와 이어진 상층부의 데크와 저층시설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가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듯, 야마구치시의 터미널 파크 정비사업은 자유통로와 역앞광장의 완성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 거점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특색있는 계획을 바탕으로 한 공공투자를 계기로 지방도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포텐셜의 부재를 해결하여 주변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의 민간활력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관민협동에 의한 일체화된 마을만들기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1. 新建築, 新山口駅南北自由通路, 新建築社, 90(12), pp.146-151, 2015
2. 新建築, 新山口駅北口駅前広場「0番線」, 新建築社, 90(12), pp.152-153, 2015
3. 丸毛遼, 内田文雄, 宋俊煥, 地方都市における鉄道駅の自由通路の空間構成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学会中国支部研究報告集, pp.675-678, 2017
4. 新山口駅ターミナルパーク整備基本計画: <http://www.city.yamaguchi.lg.jp/uploaded/attachment/5597.pdf> (최종열람 2017.8.7.)
5. parkERS HP : <http://www.park-ers.com/special/> (최종열람 2017.8.7)